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일본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2019년 농업총생산액은 전년대비 98.2%인 8조 8,938억 엔임

- 1984년에 11조7,171억 엔이었던 농업총생산액은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30년 동안 3조 엔 이상 감소했음. 2010년 8조1,214억 엔을 최저 시점으로, 일본농업 총 생산액은 약간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체 총부가가치(GAV)의 2.6%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2%의 감소세를 보임

< 농업총생산액 추이(1984년, 2014~2019년) >

(단위 : 억엔)

	1984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종 계	83,522	53,632	56,245	59,801	59,605	57,815	56,300
축산 계	32,897	29,448	31,179	31,626	32,522	32,129	32,107
가공농산물	753	559	555	598	615	615	530
농업 총생산액	117,171	83,639	87,979	92,025	92,742	90,558	88,938

* 출처 :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농업총생산액 : 해당년도에 생산된 각 농산물의 생산량(자가소비분 포함)에서 종자 및 사료를 공제한 각 농산물별 생산수량에서 농가의 생산자 판매금액을 곱하여 산출

□ 농업 취업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 수는 136만3,000명임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은 70세 이상의 종사자가 69만 6,000명(전체의 51.1%)이고, 65~69세가 25만3,000명(동 18.6%), 60~64세가 14만 명 (동 10.2%)으로 60세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 일본 농업경영이 개인에서 집단 및 법인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경향임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품목별 생산액은 「경종(논, 밭 재배작물)」이 8조8,938억 엔, 축산이 3조2,107억 엔, 가공농산물이 530억 엔이었음

- 생산액이 높은 것은 「채소」(2조1,515억 엔), 「쌀」(1조7,426억 엔)이었으나, 2014년 과 비교하면 「채소」가 96.0%로 감소한 반면, 「쌀」은 121.5%로 증가했음
- 축산류는 「닭」(8,231억 엔), 「젓소」(9,193억 엔), 「육우」(7,880억 엔), 「돼지」(6,064억 엔)이었으며, 2014년과 비교하면 「소」가 증가한 반면, 「돼지」 「닭」이 감소했음

< 생산품목별 생산액 추이(2014~2019년) >

(단위 : 억엔,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4년 대비
농업 총생산액	83,639	87,979	92,025	92,742	90,558	88,938	106.3
경종 계	53,632	56,245	59,801	59,605	57,815	56,300	105.0
쌀	14,343	14,994	16,549	17,357	17,416	17,426	121.5
보리류	384	432	312	420	398	527	137.2
잡곡	60	87	80	93	90	106	176.7
콩류	749	684	554	687	623	758	101.2
감자류	2,075	2,261	2,372	2,102	1,955	1,992	96.0
채소(소계)	22,421	23,916	25,567	24,508	23,212	21,515	96.0
과채류	9,437	10,118	10,512	10,014	10,289	9,676	102.5
엽채류	9,576	10,277	11,031	10,832	9,622	8,955	93.5
근채류	3,407	3,522	4,024	3,662	3,301	2,885	84.7
과실	7,628	7,838	8,333	8,450	8,406	8,399	110.1
화훼	3,437	3,529	3,529	3,438	3,327	3,264	95.0
공예농작물	1,889	1,862	1,871	1,930	1,786	1,699	89.9
기타작물	646	643	635	620	603	614	95.0
축산 계	29,448	31,179	31,626	32,522	32,129	32,107	109.0
육우	5,940	6,886	7,391	7,312	7,619	7,880	132.7
젓소	8,051	8,397	8,703	8,955	9,110	9,193	114.2
우유	6,967	7,314	7,391	7,402	7,474	7,628	109.5
돼지	6,331	6,214	6,122	6,494	6,062	6,064	95.8
닭	8,530	9,049	8,754	9,031	8,606	8,231	96.5
달걀	5,109	5,465	5,148	5,278	4,812	4,549	89.0
기타축산물	595	634	657	730	731	740	124.4
가공농산물	559	555	598	615	615	530	94.8

* 출처 :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 2019년 농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99.2%인 401만9,000ha로, 최근 7년간 14만 8,000ha(2013년대비 96.4%)의 감소 폭을 보임
 - 2019년 농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벼농사는 2013년대비 91.9%인 147만ha로, 13만ha의 감소를 보였으나,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음
 - 채소류는 2013년 대비 95.0% 수준인 46만4,000ha
 - 보리류는 2013년대비 101.1%인 27만3,000ha로, 최근에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임
 - 대규모로 효율적인 농업생산 및 판매, 농산물을 가공하는 지역 영농조직의 법인화 및 지역 특성을 살린 다각적인 경영을 펼칠 농업법인이 육성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농업참여제도 완화 및 휴경지 대책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자체의 감소 추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농작물의 재배면적 추이(2013~2019년) >

(단위 : 천 ha)

농작물 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배 연면적	4,167	4,146	4,127	4,102	4,074	4,048	4,019
1) 벼	1,599	1,575	1,506	1,479	1,466	1,470	1,470
2) 보리류(4종류 계)	270	273	274	276	274	273	273
고구마	39	38	37	36	36	36	34
3) 잡곡	61	60	58	61	63	64	65
3) 콩류	177	180	186	186	186	184	182
과수	230	227	233	220	216	210	209
4) 채소	481	478	475	472	469	464	457
공예농작물	153	151	151	150	-	-	-
5) 사·비료작물	1,012	1,019	1,072	1,082	-	-	-
6) 기타작물	84	84	82	81	-	-	-

- * 출처 : 농림수산성 정보부 「농림수산통계」
- * 주1: 1)은 수·육도(水·陸稻/식용용) 합계면적. 2)는 6종류 보리(식용용) 합계면적. 3)은 건조잡곡 (미성숙한 것 포함). 4)는 완두콩, 누에콩, 콩, 까치콩, 옥수수의 미성숙한 것 포함. 감자는 채소에 포함. 5)는 사료용 덜 익은 작물도 포함. 6)은 화훼, 꽃나무, 종묘 등
- * 주2: 재배 연면적은 벼, 보리류, 고구마, 잡곡, 콩류, 채소, 과수, 공예작물, 사·비료작물 및 기타작물의 재배면적 합계. 따라서 연간생산 구분이 동일한 수도(水稻) 이모작 재배 및 계절구분별 채소 등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2회이상 재배된 경우에는 각각을 재배면적으로 하여 연면적 산출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01.5%인 9,257억 엔으로 확대가 계속 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4년에 비해 1.5배가 됨
 - 2020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11.4%인 6,552억 엔으로 확대 추이가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은 79.2%인 2,276억 엔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임

< 농림수산물 수출액 추이(2014~2020년) >

(단위 : 억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산물	3,569	4,431	4,593	4,966	5,661	5,878	6,552
임산물	211	263	268	355	376	370	429
수산물	2,337	2,757	2,640	2,749	3,031	2,873	2,276
농림수산물	6,117	7,451	7,502	8,071	9,068	9,121	9,257

*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금액은 「기타조제식료품·음료」가 가장 높고, 2020년은 전년대비 118.3%인 3,169억 엔으로 두 자릿수 증가 추이를 보임
 - 「수산물(신선·냉장·냉동·염장·건조)」이 수산물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85.8%인 1,377억 엔으로 감소함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금액(2014~2020년) >

(단위 : 억엔)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출액	730,930	756,139	700,358	782,865	814,788	769,317	684,005
농림수산물 계	6,117	7,451	7,502	8,071	9,068	9,121	9,257
농산물 계	3,569	4,431	4,593	4,966	5,661	5,878	6,552
축산품	447	470	510	626	659	708	771
잡사	0.2	0.4	0	0	0	45,516	33,370
농산품	3,122	3,961	4,083	4,341	5,000	5,169	5,780
곡물·곡물가루조제품	272	368	378	368	426	462	510
과실·기타조제품	171	253	269	266	318	335	323
채소·기타조제품	73	98	108	101	105	110	122
설탕류	18	18	18	19	21	21	22
기호식품	564	707	757	786	849	835	913
기타조제식료품·음료	1,343	1,694	1,788	2,069	2,496	2,678	3,169
식물성유지(원료)	75	106	91	102	109	119	108
담배	195	236	219	138	185	164	142
천연고무류	1	1	1	1	1	1	1
면	2	4	3	5	6	7	9
기타농산품	408	476	452	488	485	438	462
임산물 계	211	263	268	355	376	370	429
수산물 계	2,337	2,757	2,640	2,749	3,031	2,873	2,276
수산물(신선·냉장·냉동·염장·건조)	1,334	1,592	1,479	1,552	1,697	1,604	1,377
수산조제품	590	653	660	658	737	687	591
기타수산물	413	512	501	539	597	582	308

*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정보」

- 2020년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3.4%인 8조 8,942억 엔으로 감소
- 농산물이 전체의 약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은 전년대비 94.2%인 6조 2,125억 엔이었음
 - 수산물의 경우, 2020은 전년대비 84.1%인 1조4,640억 엔으로 전년 실적을 크게 밑돌았음

< 농림수산물 수입액 추이(2014~2020년) >

(단위 : 억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산물	63,223	65,629	58,273	64,259	66,220	65,946	62,125
임산물	12,615	12,413	11,228	11,722	12,558	11,848	12,177
수산물	16,569	17,167	15,979	17,751	17,910	17,404	14,640
농림수산물	92,407	95,209	85,480	93,732	96,688	95,198	88,942

*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금액의 경우, 농산물의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은 「곡물·곡물가루조제품」으로, 2020년은 7,281억 엔이었음
- 2020년은 모든 농산물 수입이 감소했으며, 주요 품목은 「곡물·곡물가루조제품」이 7,281억 엔(전년대비 95.9%), 「기타 조제음료품·음료」가 6,030억 엔(동 90.4%),
 - 수산물은 「수산물(신선·냉장·냉동)이 2020년에 1조40억 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금액(2014~2020년) >

(단위 : 억엔)

품 목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입액	859,091	784,055	660,420	753,792	827,033	785,995	678,371
농림수산물 계	92,407	95,209	85,480	93,732	96,688	95,198	88,942
농산물 계	63,223	65,629	58,273	64,259	66,220	65,946	62,125
축산품	17,550	17,945	16,257	18,731	19,305	19,531	18,131
감사	38	33	27	34	30	22	12
농산품	45,636	47,651	41,990	45,494	46,885	46,392	43,983
곡물·곡물가루조제품	8,503	8,394	6,840	7,150	7,729	7,591	7,281
과실·기타조제품	4,733	5,309	4,906	5,106	5,470	5,354	5,332
채소·기타조제품	4,753	5,132	4,683	5,000	5,132	5,013	4,514
설탕류	872	785	828	826	652	657	637
기호식품	3,571	4,007	3,497	3,720	3,505	3,404	3,176
기타조제식료품·음료	6,444	6,843	6,061	6,431	6,522	6,667	6,030
식물성유지(원료)	6,373	6,675	5,360	5,741	5,787	5,584	5,582
담배	3,991	4,237	4,396	5,297	5,894	5,987	5,810
천연고무	1,509	1,317	1,008	1,501	1,225	1,226	897
면	182	185	152	182	177	154	103
기타농산품	4,704	4,766	4,259	4,539	4,792	4,755	4,622
임산물 계	12,615	12,413	11,228	11,722	12,558	11,848	12,177
수산물 계	16,569	17,167	15,979	17,751	17,910	17,404	14,640
수산물(신선·냉장·냉동)	11,466	11,750	11,033	12,569	12,232	11,697	10,040
건조수산물	592	537	555	617	600	642	564
수산조제품	3,151	3,378	3,063	3,369	3,526	3,533	3,077
기타수산물	1,360	1,501	1,327	1,197	1,552	1,532	958

*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정보」

□ 일본에서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홍콩인데, 2020년 수출액은 2,066억8백만 엔으로 2년 연속 감소했음

- 다음으로 중국 1,645억26백만 엔, 미국 1,191억73백만 엔으로, 수출액이 1,000억 엔을 넘어섬
- 상위 3개국에 대만(980억53백만 엔), 베트남(543억82백만 엔)을 포함한 5개국에서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국가·지역별 수출실적(2016~2020년) >

(단위 : 백만 엔)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1	홍콩	185,300	24.7	187,690	23.3	211,501	23.3	203,684	22.3	206,608	22.3	1.4
2	중국	89,872	12.0	100,715	12.5	133,756	14.8	153,679	16.8	164,526	17.8	7.1
3	미국	104,461	13.9	111,547	13.8	117,644	13.0	123,785	13.6	119,173	12.9	△3.7
4	대만	93,080	12.4	83,784	10.4	90,342	10.0	90,384	9.9	98,053	10.6	8.5
5	베트남	32,291	4.3	39,516	4.9	45,790	5.0	45,385	5.0	53,482	5.8	17.8
6	한국	51,126	6.8	59,669	7.4	63,479	7.0	50,144	5.5	41,512	5.0	△17.2

*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일본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0년 수입액은 1조 5,577억79백만 엔 이었음

- 수입액이 1조 엔을 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1조1,907억84백만 엔)임
- 수입액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캐나다(5,193억 49백만 엔), 태국(5,192억 96백만 엔), 호주(4,543억 26백만 엔)로 5개국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액이 감소

< 농림수산물의 국가·지역별 수입실적(2016~2020년) >

(단위 : 백만 엔)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1	미국	1,577,732	18.5	1,711,605	18.3	1,807,695	18.7	1,647,011	17.3	1,557,779	17.5	△5.4
2	중국	1,164,234	13.6	1,210,978	12.9	1,247,749	12.9	1,190,996	12.5	1,190,784	13.4	△0.0
3	캐나다	508,884	6.0	562,739	6.0	587,478	6.1	569,486	6.0	519,349	5.8	△8.8
4	태국	518,387	6.1	569,389	6.1	571,550	5.9	566,117	5.9	519,296	5.8	△8.3
5	호주	486,076	5.7	538,619	5.7	570,337	5.9	546,299	5.7	454,326	5.1	△16.8
10	한국	227,668	2.7	273,499	2.9	277,858	2.9	289,127	3.0	278,023	3.1	△3.8

*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나.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19년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2,072억8백만 엔, 임산물 16억 69백만 엔, 수산물 802억 48백만 엔, 농림수산물 합계로는 전년 대비 104.0%인 2,891억 27백만 엔으로, 2016년은 축소했으나, 수출액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담배」가 1,102억63백만 엔으로 가장 수입액이 높고, 다음으로 「가다랑어·참치류(신선·냉장·냉동)」이 171억12백만 엔, 「알코올음료」가 146억15백만 엔 수입

< 한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실적(2014~2019년) >

(단위 : 천엔)

품 목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수산물 계	232,537,068	227,667,909	273,498,696	277,858,474	289,126,567
농산물	146,432,262	142,483,704	181,131,436	191,140,275	207,208,607
임산물	2,100,037	2,136,911	2,122,516	2,028,284	1,669,493
수산물	84,004,769	83,047,294	90,244,744	84,689,915	80,248,467
담배	34,883,555	42,298,986	75,784,930	92,399,474	110,263,177
가다랑어·참치류(신선·냉장·냉동)	19,889,150	20,373,707	20,279,069	19,898,840	17,112,375
알코올음료	30,263,911	26,045,698	24,112,966	18,497,417	14,615,389
신선채소	12,282,287	12,543,029	12,527,072	13,466,490	12,655,515
가당조제식료품	13,554,520	12,426,878	13,722,437	12,711,463	11,494,379
김	2,479,572	3,932,084	7,083,350	5,934,800	6,169,823
기타 조제채소	5,530,973	5,273,389	5,287,491	6,321,189	6,159,661
전복(활어·신선·냉장·냉동)	4,602,315	5,104,000	5,402,137	5,185,297	5,529,761
굴(활어·신선·냉장·냉동)	6,209,984	1,967,479	2,090,623	2,718,654	3,156,301
바지락(활어·신선·냉장·냉동)	3,121,525	4,058,114	3,603,951	2,552,074	2,868,228

* 출처: 농림수산성 「양국간무역실적」

Ⅱ.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19년 신선식품 판매규모(청과전문점, 정육점, 닭고기·달걀전문점, 생선 전문점 합계)는 전년 대비 99.6%인 2조 4,200억 엔으로 약간 감소했음(야노경제연구소 추계)
 - 소비자층의 신선식품 주요 구입처가 식품슈퍼마켓 등 양판점인 상황은 변함이 없으며, 양판점에 대항할 수 있는 저가격 설정 및 대량 출점을 계속할 수 있는 일부 대형 체인을 제외하고는 집객에 고전하고 있음
 - 정육 및 청과, 생선 등 각종 신선식품 전문점의 경우, 옛날 채소가게나 생선가게와 같이 시장에서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업체는 매년 사라지고 있음
 - 반면, 전국 전개를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상업시설에서의 출점으로 점포수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새로운 수익원 확대를 위해, 전문점이 입점한 시설 내에서 점포에서 취급하는 정육이나 생선으로 만든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음
 - 신선식품 유통의 경우, 점포망의 규모 및 집객력의 차이로 인해 이전부터 식품슈퍼마켓 등의 양판점이 전문점의 위협이 되어왔음
 - 넷슈퍼¹⁾ 등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에서는 2020년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참여가 잇따르고 있어, 전문점과의 경쟁이 되고 있음. 라구텐(楽天)은 세이유(西友)에 출자하여, 공동 운영하는 넷슈퍼 사업인 「라쿠텐세이유넷슈퍼」를 개시함. 아마존은 대형 슈퍼마켓인 라이프와 협업하여 동사의 사이트에서 라이프의 넷슈퍼 서비스를 개시함

* 주1) 넷슈퍼 : 식품, 일상용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당일 혹은 단시간에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 가공식품시장(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의 2019년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0.1%인 29조6,553억 엔이었음. 가공식품 시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고령화 및 고령 가구의 증가로, 조리의 간편화 및 시간 단축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착실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년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음
 - 가공식품 시장(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은 2024년도에 30조 1,653억 엔으로 예측됨. 2020년도는 COVID-19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인 카테고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불안 요소도 있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사회 진행 및 소가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식품시장 및 고령자 대응 식품시장의 확대, 1인용 타입의 상품군이 신장하고, 간편 지향이 강해지면서 조리식품 시장 등이 호조세를 보일 것임
 - 카테고리별 2019년도의 시장규모 구성비는 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으로 음료가 18.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과자 13.5%, 주류가 11.4%를 차지함
 - 가장 시장규모가 큰 카테고리는 음료인데, 최근 5년간 전년대비 평균치는 100.3%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주목되는 것은 인스턴트·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빵·면류, 간편성이 높은 카테고리화 건강의식 고조로 건강식품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임
 - 인스턴트식품·레토르트식품을 비롯 간편지향 및 개식화(solo dining) 대응에 따라 호조세인 카테고리가 많음. 또한 레토르트 쌀밥·죽, 즉석밥은 최근 몇 년간 재해비축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냉동식품은 최근 간편성, 보존성이 높아, 냉동피자·그라탱 이외의 카테고리에서는 신장세를 보임. COVID-19의 영향으로 비축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2019년도의 시판용은 특히 호조세를 보임
 - 빵·면류는 파스타류(시판용) 및 즉석면류(컵면)가 원래 약간 증가세에 있었는데, 특히 2019년도는 COVID-19의 영향으로 보존성과 간편성이 뛰어난 두 시장이 크게 신장했음

<가공식품 시장규모 추이(2015~2019년도) 및 예측(2020~2024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근 5년 전년도비 평균치	2019년 시장 구성비
음료	54,793	54,982	55,663	55,719	56,092	55,540	—	18.7%
전년도대비		100.3%	101.2%	100.1%	100.7%	99.0%	100.3%	
과자류	37,442	38,632	39,433	39,700	39,867	39,956	—	13.5%
전년도대비		103.2%	102.1%	100.7%	100.4%	100.2%	101.3%	
주류	34,763	34,809	34,610	34,503	34,088	33,870	—	11.4%
전년도대비		100.1%	99.4%	99.7%	98.8%	99.4%	99.5%	
빵·면류	23,736	24,365	24,566	24,768	24,960	25,684	—	8.7%
전년도대비		102.6%	100.8%	100.8%	100.8%	102.9%	101.6%	
냉동식품	12,930	13,145	13,400	13,700	13,906	14,115	—	4.8%
전년도대비		101.7%	101.9%	102.2%	101.5%	101.5%	101.8%	
조미료류	12,405	12,474	12,585	12,609	12,513	12,530	—	4.2%
전년도대비		100.6%	100.9%	100.2%	99.2%	100.1%	100.2%	
수산가공품	8,539	8,653	8,595	8,602	8,786	8,786	—	3.0%
전년도대비		101.3%	99.3%	100.1%	102.1%	100.0%	100.6%	
농산가공품	6,765	6,757	6,707	6,675	6,970	6,909	—	2.3%
전년도대비		99.9%	99.3%	99.5%	104.4%	99.1%	100.4%	
식육가공품	6,862	6,661	6,666	6,617	6,375	6,483	—	2.2%
전년도대비		97.1%	100.1%	99.3%	96.3%	101.7%	98.9%	
유제품	5,029	5,180	5,172	5,235	5,426	5,388	—	1.8%
전년도대비		103.0%	99.8%	101.2%	103.6%	99.3%	101.4%	
건강식품	4,481	4,710	4,923	5,012	5,098	5,266	—	1.8%
전년도대비		105.1%	104.5%	101.8%	101.7%	103.3%	103.3%	
인스턴트·레토르트식품	5,111	5,220	5,247	5,329	5,281	5,208	—	1.8%
전년도대비		102.1%	100.5%	101.6%	99.1%	98.6%	100.4%	
설탕·감미료류	3,268	3,270	3,208	3,147	3,004	2,930	—	1.0%
전년도대비		100.1%	98.1%	98.1%	95.4%	97.5%	97.8%	
유지가공품	2,205	2,229	2,221	2,215	2,247	2,251	—	0.8%
전년도대비		101.1%	99.6%	99.7%	101.4%	100.2%	100.4%	
밀가루류·가루제품	963	974	979	988	958	974	—	0.3%
전년도대비		101.2%	100.5%	100.9%	97.0%	101.7%	100.2%	
기타	71,364	71,162	70,985	70,993	70,786	70,664	—	23.8%
전년도대비		99.7%	99.8%	100.0%	99.7%	99.8%	99.8%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일본은 저출산화가 진행되어 인구감소 국면을 맞이한 반면, 평균 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는 향후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소비생활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의 소비활동 확대 및 고령자용 상품·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만혼 및 미혼의 증가, 핵가족화 등에 따라 소가구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음
 - 소가구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어, 손쉽게 살 수 있는 편의점이나 드러그스토어 등의 이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식이나 조리식품을 구입하는 외식적 내식(中食)³⁾이 증가하고 있음

* 주3) 외식적 내식(中食): 외부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거나 배달시켜 가정 내에서 먹는 식사 형태

2. 소비트렌드

- COVID-19에 의한 식료품 지출의 변화
 - 총무성의 가계조사(전국 2인 이상 가구)에 의하면, 2020년 식료품 지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7만6,640엔이지만, 외식지출은 전년대비 24.7% 감소한 9,587엔으로 대폭 감소했음
 - 반대로 COVID-19 영향으로 지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항목은 면류(17.2% 증), 신선육(12.0% 증), 달걀(10.6% 증), 신선채소(10.5% 증), 과일가공품(12.0% 증), 유지 (10.7% 증) 등을 들 수 있음
 - 외식적 내식 형태인 조리식품도 전년대비 3.5% 증가하여 호조세임. 또한 주류도 전년 대비 16.2%로 대폭 증가하여 「흡술」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COVID-19로 성장이 기대되는 식품 카테고리 · 품목

- COVID-19 영향으로 「비축」 「아침식사」 「직접요리」 「홈술」 을 키워드로 한 식품시장이 신장하고 있음
- COVID-19 영향으로 쇼핑 횟수를 줄이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파스타류나 즉석면류를 비롯한 면류, 밀가루나 프리믹스, 냉동식품, 채소통조림, 과일통조림 등의 수요가 증가했음
- 재택근무 확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아침식사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따라서 빵류, 그중에서 식빵이나 모닝롤빵이 호조세임. 또한 잼이나 땅콩크림 · 초콜릿크림의 수요도 증가했음
-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소비자가 증가해, 전분이나 튀김가루, 카라아게(唐揚げ)가루⁴⁾는 견조한 추이를 보임. 또한 과자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밀가루와 생크림, 마가린의 수요가 증가했음
- COVID-19 상황에서는 음주 모임을 자제하는 사람이 많고, 홈술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주류는 저알코올음료가 호조세임. 안주가 되는 식품도 잘 팔리고 있어 치즈나 축육통조림 등이 호조세를 보임

* 주4) 카라아게(唐揚げ)가루: 식재료에 밀가루나 전분을 얇게 입혀 튀기는 요리인 카라아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루에 조미료 및 향신료가 첨가되어 있음

□ 확대되는 식품 손실 대책

- 일본에서는 연간 약 600만 톤의 식품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계절 상품의 대량 폐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등, 식품 손실 삭감 움직임이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 여기에 호응하듯 대형 식품기업 및 소매를 중심으로 식품 손실 삭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AI 및 IT를 활용한 대응과 푸드 셰어링 서비스 등, 식품 손실 삭감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음
- 식품 손실 삭감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해당되며, 푸드 공급망 모든 영역에 요구되고 있어 CSR⁵⁾의 관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로서 주목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주5)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슈품목

① 식물육(植物肉)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일본의 식물육 시장은 150~160억 엔 정도로, 2022년에는 250억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는 식물육 원료로 완두콩이나 병아리콩을 주로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대두는 일본인에게 친숙한 식재료이면서 건강지향 식재료로서도 인지도와 친화성이 높음 - 일본에서는 현미와 대두를 함께 사용한 상품도 있음 - 식물육의 타깃 소비층은 우선 비건·채식주의자인데, 그 비율은 해외가 10%인 반면 일본은 몇 %에 불과함 - 일본에서 비건·채식주의자를 타깃으로 할 경우, 시장규모가 작아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식물육의 타깃으로 건강지향성이 높은 소비층의 포섭을 겨냥하는 메이커가 많음 - 식물육은 소매점에서의 상품 전개 및 외식 메뉴 도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됨
<p>인기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유래 온실가스 배출 및 사료·수자원의 대량 이용 등, 축산업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경으로, 장기적으로 기존의 동물유래 육류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콩류나 채소 등을 원재료로 한 식물 유래육, 동물세포를 배양해 제조하는 배양육이 주목받고 있음

② 건강오일(Healthy Oil)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오일에는 올리브유, 참기름, 쌀기름, 아마씨유, 들기름 등이 있으며, 모두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식용유 업계 전체적으로는 범용유의 품질이 거의 비슷해지는 문제도 있어, 건강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건강오일의 인지도는 향상되었지만,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와 같은 새로운 기름은 아직 구입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많아,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대응도 보임
<p>인기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오일의 인지도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건강지향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오일이 튀기거나 볶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 요리에 뿌리거나 그대로 먹는 새로운 섭취방법이 알려진 것이 인기의 배경에 있음

③ 발효식품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년 전부터 발효식품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레시피 사이트에서 발효식품의 검색 건수가 높아지는 등 적극적으로 발효식품을 섭취해 건강유지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요구르트는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드링크 요구르트는 「균활(菌活)⁶⁾」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2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균활 붐 속에서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식습관 생활에 정착하고 있음 - 낫토는 발효식품 붐이 계속되고, 소비자의 강력한 절약지향, 높은 건강 기능성을 배경으로 9년 연속 시장이 확대되어, 2016년 이후 계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전국낫토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업무용을 포함한 2020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2,711억 엔으로, 사상 최대 성장률을 기록함
<p>인기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미용을 위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장활(腸活)⁷⁾」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 장내의 선옥균을 증가시키는 발효식품은 장활에 적합한 식재료로 주목받음 - COVID-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면역력 향상이 기대되는 발효식품이 다시 주목되면서 발효식품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가정이 증가함 - 건강의식 고조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제까지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던 된장이나 요구르트를 자택에서 직접 만드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음

④ 탄산수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산음료 중에서도 무가당 탄산수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크게 확대됨 - COVID-19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도에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4.3%인 480억 엔(야노경제연구소 추계)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COVID-19로 재택시간 증가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향한 재충전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파악됨 - 또한 이자카야(居酒屋) 등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도 있어, 밖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줄어들고 자택에서 음주를 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재료로서의 이용도 증가함
-------------	---

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는 주로 알코올과 섞어 마시는 용도로 쓰였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물 대신 마시는 「스트레이트 음용(직접 음용)」이 정착되면서 음용 범위가 확대됨 - 직접 음용은 건강 이미지가 강하고, 알코올을 대체하는 다양한 음용 상황에 맞추기 쉬운 점이 인기를 끌고 있음
-------	--

⑤ 마리토쪼(Maritozzo)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토쪼」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의 전통과자로 브리오슈(빵) 생지에 크림을 넣은 간단한 음식 - 마리토쪼는 2020년 가을경에 「KALDI」가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짐 - 그 후 2021년 5월에는 대형 제빵기업인 아마자키 제빵(山崎製パン)이 진출하는 등 현재는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되면서 사회적인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자빵 생지와 크림이라는 친숙한 소재로만 만드는 간단한 음식이지만, 현재는 전통적인 것부터 독특하게 변형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음
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길을 끄는 모양, 빵과 생크림의 조합으로 맛을 상상하기 쉬운 점, 친숙한 재료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기의 요인 - 작고 둥글고 귀여운 형태가 사진을 잘 받는다는 점도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 - 코로나 상황에서,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볍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크기라는 것도 시대에 부합함 - 각 가게만의 독특한 변형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리토쪼가 판매되고 있는 것도 유행의 배경임

3. 유통현황

가. 유통현황 및 구조

- 2019년도 오프라인 유통 시장규모(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드러그스토어의 식료품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대비 102.4%인 21조 6,114억 엔으로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백화점은 축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식료품 매출이 높은 슈퍼마켓, 편의점은 점포 수의 증가로 착실히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드러그스토어가 식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20년도는 COVID-19로 인해 슈퍼마켓, 드러그스토어가 신장하는 한편, 편의점이 저조한 추이를 보이는 등 판매채널의 명암이 엇갈렸음
- 2019년도 식품 온라인 유통시장의 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3조 8,086억 엔으로 추계됨
 - 2019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년도 전반기, 특히 여름철 기온이 낮아 7월 말까지 저기온인 날이 계속됨에 따라 음료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었으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 재난비축을 목적으로 대량구매 및 사재기가 있었고, 10월의 소비세 10% 도입됨에 따라 주류의 경우 9월에 선구매 수요가 있었던 반면, 10월 이후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점, 증세 후의 절약지향으로 내식화가 진행된 점, 대부분의 기업이 결산기를 맞이하는 2020년 2~3월에 COVID-19로 인해 내식화 및 외출자제, 식료품 사재기 등이 발생한 것을 들 수 있음
 - 식품 통신판매 시장은 확대세가 이어져 일정 수요까지는 신장했으나, 더 이상의 성장 요소가 부족하던 상황(약간의 포화상태)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일본의 식품유통은 복잡하며, 그것이 외자계 소매업의 일본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진입 후 철수단계를 밟는 외자소매를 많이 볼 수 있음
 - 소매기업은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대부분의 대형 소매기업이 직접거래로 농산물 조달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농업생산법인 및 JA(농업협동조합)와 제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형 외식기업은 저가의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 수입식품은 수입업자를 경유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기본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양관점 등과 교섭하여 판매하지만, 일본의 도매업자를 경유해 판매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또한 일본의 식품기업과 식품판매회사가 위탁판매나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기타,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판매를 경유한 판매도 증가세에 있으며, 기업 및 도매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

□ 일본의 청과물 유통은 주로 시장유통과 시장의 유통으로 나누어짐

- 시장유통은 JA(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도매업자가 중간도매업자, 매매참가자의 매입, 소매·외식 등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시장의 유통은 소매 등의 수요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와 계약재배 외, 인터넷 판매, 직매장의 직접판매가 존재함
- 신선채소 등은 시장의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를 확대하는 소매업의 움직임도 있음

□ 오프라인 유통채널 현황

- (백화점)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의 백화점 총매출액은 전년도 대비11) 94.4%인 6조425억 엔으로, 2015년에 전년도보다 증가로 돌아섰으나, 2016년도 이후는 다시 감소로 전환됨
 - 식료품 매출액도 2019년도가 전년도대비 96.3%인 1조7,358억 엔으로 감소세가 계속 되고 있음
 - 백화점 각 사는 장소 대여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탈 백화점형」이나 백화점에서 상품기획 및 상품 구성을

결정해, 기존의 매장을 더욱 강화하는 「매장 확충형」 등의 전략을 펼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착수해왔으나,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의 집객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략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슈퍼마켓)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슈퍼마켓(GMS12) 및 SM13))의 총매출액은 전년도대비 101.1%인 13조3,032억 엔으로 3년 연속 확대세를 보임
 - 식료품 매출액은 매년 확대 추세로, 2019년도는 전년도대비 102.4%인 10조723억 엔으로, 총매출액은 보합 추이를 보인 반면 식료품의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음
 - 총매출액에 대한 식료품 매출액 구성비는 2009년에 63.9%였으나, 2019년에는 75.7%까지 확대됨
 - 2020년도는 COVID-19의 확산으로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에 「집콕 소비」가 늘어 식료품 판매가 호조였음
 - 일본의 슈퍼마켓은 식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 업계에서도 식품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신규 출점에 의한 점포 수의 증가, 맛별이 및 고령화 세대 증가에 따른 「반찬 수요 증가」로 반찬부문을 강화하는 추세임
 - 소비자는 디플레이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적인 소비는 절약지향을 강화하고 있음. 그 가운데 PB상품은 일반적인 NB상품에 비해 높은 매출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 (편의점) 일본의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대기업 3사의 매출이 편의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편의점 매출액 기준의 시장 규모는 전년도대비 102.1%인 12조505억 엔임
 - 식료품 매출액에 대해서도 2019년도가 전년도대비 102.1%인 7조7,950억 엔으로 2011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음
 - 2013년 이후 매년 105%대로 안정된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2016년도 이후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함. 2020년도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내점객 수가 감소

- 식료품에 대한 수요증가 영향으로, 도시락 및 반찬, 카운터 패스트푸드 상품(계산대 주변의 튀김 등 스낵류)을 비롯해 디저트 등의 오리지널 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 (드러그스토어)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드러그스토어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8.4%인 7조96억 엔으로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식품분야의 성장세가 현저하고, 2019년도도 전년도대비 109.5%인 2조84억 엔으로, 최근 몇 년간 10% 전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식품 카테고리의 강화로 식품슈퍼마켓의 요소를 갖춘 드러그스토어의 전개 및 헬스&뷰티의 강화 등 드러그스토어 업태의 다양화를 진행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 교외형 점포에서는 식품슈퍼마켓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상품 구성을 실현한 점포도 있음
 -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해 화장품 등의 매출도 감소한 반면, 마스크 및 소독제, 핸드워시 등의 위생관련 상품, 식품수요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였음

□ 온라인 유통채널 현황

- (쇼핑 사이트) 2019년도 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5.3%인 1조5,020억 엔으로 추계함
 - 쇼핑 사이트는 「라쿠텐이치바(楽天市場)」 및 「Yahoo!쇼핑」과 같은 쇼핑몰 형태와 「Amazon」, 「LOHACO」, 「yodobashi.com」과 같은 직판형으로 나뉘어짐
 - 식품의 경우 쇼핑몰형과 직판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NB상품 및 생활밀착품(음료 등) 등은 가격이 싸고, 자택으로 배송되는 시간도 짧으며, 배송료가 저렴한 등의 이점이 있는 직판형이 강세임
 - 한편 지방의 유명한 음식, 냉동어패류 및 냉동정육, 과일, 냉동스위츠 등, 직접 주문 성향이 강한 카테고리에서는 쇼핑몰형이 강세임

Ⅲ. 농식품 정책 및 제도

1. 농식품 관련 정책

□ 미래투자전략 2018

- 일본정부는 2018년 6월15일, 임시 각의에서 성장전략으로서 「미래 투자전략 2018」을 결정했음.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는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Society 5.0」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견실하게 실시함

< 「Society 5.0」를 향한 대응(농업분야)>

지향해야 할 사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 인프라인 「데이터활용기반」의 생성이 민관 연계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음. 2020년까지의 집중추진기간을 계기로, 정부·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용과 기업의 테두리를 초월한 데이터 연계가 현격히 진행되어, 민관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있음 · 민간과의 직접 대화로 니즈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는 100% 기계판독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데이터를 활용한 일본발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표준이 되어 국내외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농업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농가의 지식, 생육상황 및 기상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신규 참여자도 맛있고 안전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을 통해 돈이 되는 농업이 확산되고 있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기관 등이 보유한 농업, 지도, 기상 등의 정보의 오픈화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농업데이터연계기반」을 올해 안에 실시, 데이터에 근거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높은 농업현장 구현을 추진함 · 농업생산 자재의 가격인하와 농업 및 생산자재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생산자재 업계의 재편 등을 추진함. 농림수산물 등의 유통·가공의 구조 개선을 위해, 중간 유통의 근본적인 합리화를 포함한 사업·업계의 재편 등을 추진함 · 농업분야에서 지역의 경제계와 연계하여 경영개선 및 인재매칭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영농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을 배우는 장인농업경영학원을 2018년에 20현 정도에 개강 예정임 · 산학관에 의한 기상비즈니스추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력, 관광, 유통, 보험, 농업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기상 비즈니스를 강력히 창출하기 위해, 기초적인 기상관측 및 예측 데이터의 공개를 진행함과 동시에 2018년 중에 필요한 제도를 검토할 예정임

□ 「 식품 손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 시행

- 식품 손실 삭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SDGs 액션플랜」에서, 가정에서의 식품 손실 삭감 대응을 위한 보급계발 및 식품산업에 대한 푸드뱅크 활동 추진, 서플라이체인 상관습 재검토 지원 등 식품 폐기물 삭감 및 활용을 위한 대응을 시작함
- 또한 식품 손실 삭감에 대해, 정부·지방공공단체·사업자의 책임, 소비자의 역할, 관계자와의 상호 연계협력에 대해 규정한 일본 최초의 식품 손실에 관한 법률인 「식품 손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 손실 삭감 추진법)이 2019년 5월에 공포되어, 동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음
- 「식품 손실 삭감 추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식품 손실 삭감에 관련된 시책이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관계 부처 회의가 개최되고 있음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관리·법률 시스템

- 관세관련 법령에는 주로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 잠정조치법」이 있음

관련법	개요
관세법	-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물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관세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관세정률법	- 관세의 과세물건, 세율, 과세표준, 감면, 기타 관세제도에 대해 규정한 법률 - 관세는 수입화물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며, 세율은 동법 별표에 정해져 있음 - 그 밖에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등의 특별관세, 수입금지품, 수입영화등심의회, 관세율심의회 등에 대해 규정
관세잠정조치법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 조정에 대해, 관세정률법 및 관세법의 잠정적 특례를 규정한 법률

- 또한 필요한 통관절차는 수입방법에 따라 다르며,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의 관세법 제70조에서 말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함

□ 통관절차

- 물품의 수입자는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하역한 후에 보세지역에 반입한 다음,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납세)신고를 실시함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확인해 수입을 허가함.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관이라고 함. 통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물품이 국내에서의 유통을 인정받게 됨

<일반화물로서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수입하는 경우>

제출시기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
제출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청의 통관담당
관세	- 수입신고에 근거해 세액 확정(신고납세방식) -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 엔 이하일 경우,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을 적용(잡콩, 코코아 조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적용 제외).
수수료	무료 ※통관업자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한 경우는 그에 대한 수수료 지불
통관의 주요절차	①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선박회사(항공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옴 ② 통지를 한 선박회사·항공회사에 가, 운송관련서류(화물인도지시서 등)를 받음 ③ 상업송장, 운임명세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함 ④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허가서와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함

□ 사전신고제도

- 식품 등의 수입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도」가 있음 모든 식품 등에 대해 화물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검사가 필요한 물품 등을 제외하고 화물도착 전이나 반입 후에 신속히 신고필증이 교부됨

- 수입신고는 필요사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수입신고서 외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요서류	내 용
상업송장 (Invoice)	품명, 수량, 가격, 계약조건, 계약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적된 화물의 명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금결제, 수출입신고 등도 Commercial Invoice를 기준으로 처리됨.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해상운송장 (Sea Way Bill: SWB),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근거로 화물을 인수,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화주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발행함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포장별로 품명, 개수, 중량, Shipping Mark 등을 기재함.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Invoice로 병용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보험료명세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임명세서	

- 기타 화물 종류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함

필요서류	내 용
타 법령 허가 · 승인 증명서	식물방역법 등의 관세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
감면세증명서	감면세 적용을 받는 경우

나. 검역제도

① 관리 · 법률 시스템

- 판매 등의 목적으로 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여, 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수입자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되는 식물(과일 및 채소 등의 식품도 해당)에 대해서는 유용한 식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충해가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 가축의 전염병이 일본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 대상을 지정해(지정검역물), 축산물의 수입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의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동물의 전염병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장관의 수입허가가 필요함

② 검역절차

- 채소·과실 등 식물계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소에서,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동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음
- 식물검역소와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과 그 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후생노동성의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후생노동성 검역소는 수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식품위생법의 규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검역소는 검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내용을 지시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여부를 판단함
- 수입하는 화물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돌려주어,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함

③ 검역제출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 식품 등 수입신청서 : 2부
 -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다름
 -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명」과 「제조공정표」가 필요함.
 -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사에 필요한 서류
 - 수입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을 수입하는 항구(공항)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방역검역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 Bill)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식물, 수입금지 등 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함

다. 라벨링 제도

- 식품의 표시는 식품표시기준을 정한 「식품표시법」을 중심으로, 적정한 계량을 정한 「계량법」, 허위·과대표시를 방지하는 「경품표시법」, 미곡 등 산지정보를 전달하는 「쌀 트레이서빌리티법」,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일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아래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본어로 표기해야 함
- 식품표시법
 -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표시는 식품표시법의 규제를 받음
 - 식품표시법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첨가물 포함)임. 주세법이 정한 「주류」도 대상임
 - 2015년 4월의 식품표시법 시행으로, 그 전까지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세 법률에 기재되어 있던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었음
 - 구체적인 표시규칙은 「식품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맞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음
 - 식품표시기준은 식품을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 구분 각각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업무용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식품 관련 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의 「공통되는 의무 표시」, 「개별적 의무 표시」, 「의무표시특례」, 「임의표시」, 「표시방식」, 「표시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통 표시사항

- 식품 관련 사업자가 신선식품을 판매할 때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명칭」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세부사항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현미 및 정미에 따라 각기 규정됨)

□ 일정 식품의 공통 표시사항

- 「공통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일정 식품을 판매할 때는 정해진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함

<일정 식품의 공통 표시사항>

방사선 조사(照射)에 관한 사항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사실 및 방사선을 조사한 연월일임을 명기한 글자를 기재한 해당 연월일을 표시함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사항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품종마다 ①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②일본의 야생식물에 대한 영향은 「카르타헤나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 유통, 생산하게 되어 있음.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규칙이 규정되어 있음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이라는 글자 또는 그 취지를 적확히 알리는 문구를 표시함. 단,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식품은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임을 명기하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내용량	육류, 채소, 어패류, 등유 등 29종류를 특정 상품으로 정함 ※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② 계량법의 상품중량제도」를 참조
식품 관련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식품 관련 사업자 중 표시내용에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함

□ 영양성분표시

- 식품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 및 열량을 의무표시대상 성분, 권장 표시대상 성분, 임의표시대상 성분으로 정함. 이 영양성분 및 열량은 국민의 영양섭취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결핍 또는 과잉섭취가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함

- 영양성분 및 열량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취지, 나트륨(식염) 및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의 영양강조표시를 할 경우 등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의무가 있음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특정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및 특정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 또한, 식품 표시기준에서 정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표시 방법은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이하 「특정 원재료 등」이라 한다) 을 원재료로 포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 안에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함(개별 표시의 원칙)
- 포함하는 재료를 알리는 이러한 표시는 「(○○을 포함)」(「○○」에는 특정 원재료 등 이름을 표시. 이하 동일.) 이라고 표시하고, 특정 원재료 중 「우유」는 「(우유 성분을 포함)」이라고 표시함
-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을 함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첨가물의 물질명 바로 뒤에, 괄호 안에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표시함. 유래하는 재료를 알리는 이러한 표시는 「(○○ 유래)」라고 표시하며, 특정 원재료 중 「우유」는 「(우유 유래)」라고 표시함

<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

【의무】 특정 원재료 7품목	새우, 게, 밀가루, 메밀, 계란, 우유, 땅콩
【권장】 특정 원재료에 20품목 준하는 것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우육,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계육, 바나나, 돈육,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 주요 품목별 표기사항 예시

유기 JAS 인증 상품	 <p style="text-align: center;">유기 JAS 마크</p>
신선 채소	 <p style="text-align: center;">원산국 상품명 수입자</p>
축산 가공품	 <p style="text-align: center;">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 보존방법 제조자</p>
수산물	 <p style="text-align: center;">원재료명 보존방법 상미기 내용량 원산국명 수입자</p>



영양성분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수입자



영양성분표시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수입자



상품명
원재료명
도수
상미기한
보존방법
수입자

라.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 일본이 제출한 농식품 관련 TBT 통보(2020년 1월~)

배포일	2020/4/6
대상품목	사료와 사료첨가물
목적	소비자 정보, 라벨링,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품질 요구사항
심볼/ 내용설명	G/SPS/N/JPN/682 및 G/SPS/N/JPN/682/Add.1로 통지된 G/TBT/N/JPN/663, MAFF(농림수산성)는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표준 및 규격에 관한 장관 조례에서 말 사료에 대한 구성, 제조 및 라벨 표시에 대한 표준과 규격을 정할 것이다. 또한, MAFF는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 대해 "인간 소비를 위한 말"을 규정할 것이다. 부록은 이 개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 TBT 통지는 2020년 3월 31일에 통보된 G/SPS/N/JPN/732와 동일하다.

배포일	2020/6/3
대상품목	사료와 사료첨가물
목적	소비자 정보, 라벨링, 인간 건강 또는 안전보호,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품질 요구사항
심볼/ 내용설명	2020년 4월 6일 G/TBT/N/JPN/663에 공지된 바와 같이,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표준 및 규격에 관한 조례 개정, 사료제품의 오염물질의 최대 수준, 사람 소비만을 위한 말에 대한 고시의 발행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개정사항과 발행사항은 2020년 6월 1일 "캄포"(일본 관보)에 게재되며 부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2020/7/31
대상품목	사육을 위한 소, 말, 돼지로부터 유래한 정액 및 배아(HS: 0511.10,0511,99)
목적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67 생산부터 인공수정, 배아이식까지 이력 추적을 확보하여 부정거래 및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MAFF(농림수산성)는 가축개량증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인공수정이나 배아이식에 사용되는 "지정 정액 또는 배아"로 채워진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을 확립할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에 다음 항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a) 정자 1) 정자 기증자 이름 2) 채취 날짜 - 정자 기증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1)의 대체로 개별 식별 번호(Bovine)를 표시할 수 있다. b) 배아 1) 정자 및 난모세포 기증자 이름 또는 개인 식별 번호(Bovine) 2) 채취일 3) 인공수정센터 등록번호. - 배아 인증번호는 1) 및 2)의 대체품으로 표시될 수 있다. 참고: 이 개정사항에 따라 일본 검정, 일본 갈색, 일본 쇼트혼, 일본 폴드, 4개 품종의 잡종에 대해 "지정 정액과 배아"를 지정하는 조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0년 4월 공포한 가축유전자원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지정 정액과 배아"의 부적절한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

배포일	2020/10/5
대상품목	현미와 백미 HS코드: 1006(쌀);
목적	소비자 정보, 라벨링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75 현 제도에서는 현미 또는 백미의 경우 생산지·품종·생산연도가 동일한 미가공 현미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고,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농산물검사법(1951년 법률 제144호)에 의해, 수입품의 경우는 수출국 등의 공공 기관에서 인증한 경우에만 산지·품종·생산연도를 표시할 수 있다. 식품표시기준은 위에 언급된 인증 없이 현미 또는 백미의 생산지·품종·생산연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며, 식품 관련 종사자는 이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배포일	2021/2/11
대상품목	사육용 황소(육우) 및 멧돼지 HS 코드: 0102(살아 있는 소의 동물), 0103(살아 있는 돼지);
목적	기타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89 일본에서 사용하는 황소(육우) 및 멧돼지 등급기준 개정안을 통보 하기 위함이다. 등급 기준은 품종, 능력, 체형별로 정해져 있으며, 수입 황소 및 멧돼지에 적용되지 않는 능력만 개정안에서 수정될 예정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육에 사용되는 가축의 수컷은 가축개량증식법에 따라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사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육증명서에는 품종, 능력, 체형에 따른 등급이 기술되며,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황소(육우)와 멧돼지의 등급기준이 2020년 3월 발간된 가축 개량 및 성장목표에 맞게 개정될 것이다.

배포일	2021/3/29
대상품목	사육용 황소(육우) 및 멧돼지
목적	기타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89/Add.1 일본 농림수산성은(MAFF)은 사육용 황소(육우)와 멧돼지 등급 기준을 개정했다.

對일본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 전 준비

식품위생기준 확인

- ☑ **제출서류(A)**
위생증명서, 수출 전 검사서(필요 시)

현장검역 필수품목 확인

- 대상품목 : 루바브,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 적용일자 : '20.01.29 ~

- ☑ **현지유관부처** 농림수산성(MAFF)

2



수입신고

전자통관시스템(NSCCS) 전자신고 또는 세관 직접 신고

- 화물 도착 7일 전부터 사전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③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④ 포장명세서 보험증명서 ⑤ 수입신고서 ⑥ 원재료 및 제조 공정 설명서
- ⑦ 위생증명서(육류, 복어제품 등 수출 시) ⑧ 시험성적서(필요 시)

☑ 현지유관부처 지역검역소

- 소속: 후생노동성(MHLW)

전자통관시스템(NACCS)

- 소속: 재무성 관세국 www.naccs.jp

3



검역 및 심사

☑ 제출서류

- ① 수입검사 신청서 ②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

동물성 제품

- 검역대상 품목은 수입검역증 또는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 취득 필요
- 우리나라 소, 돼지 등 육류 수출 전면 금지이나 일부 농림수산성 사전승인 공장은 가능
- 검사대상 및 의견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축산물검역정보의 품목별 수출요건 확인

☑ 현지유관부처 동물검역소

- 소속: 농림수산성(MAFF)

지역검역소

- 소속: 후생노동성(MHLW)

식물성 제품

- 수입금지품목: 흙, 검역 병해충 검출 품목
- 검사대상: 채소, 과일, 곡류, 콩류, 건조 목초, 절화, 관상용 식물, 종자, 묘목, 구근, 관상용 식물, 목재, 향신료, 한약재 등

☑ 현지유관부처 식물방역소

- 소속: 농림수산성(MAFF)

지역검역소

- 소속: 후생노동성(MHLW)

4



관세납부

WTO 협정세율 또는 RCEP 협정세율 적용

- RCEP 협정세율 '22.01. 발효 예정

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x 소비세율

- ☑ **현지유관부처** 관세국

5



반출(합격 시)

-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일본어

표기사항: ①명칭 ②원재료명 ③첨가물 ④내용량 ⑤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⑥보관방법 ⑦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

⑧식품 관련 사업자의 성명/명칭/주소 ⑨제조업장(제조장소) ⑩그 외 식품의 특성에 따른 표시사항(알레르기 항원 표시 등)

2021년 12월 기준

